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최 정 미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 속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을 선정하였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관련 변인간의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어머니 287쌍과 담임교사 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결혼적응,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애정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반 동성의 또래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검사도구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r계수를 산출하였고,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선정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요인,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3.74), 결혼적응(3.64), 친밀애착요인(3.48), 아동의 사회적 능력(3.48)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요인의 점수 (2.12)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본 결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친밀애착요인, 결혼적응, 불안애착요인 순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응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 친밀애착요인, 가정의 소득, 불안애착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결혼적응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밀애착요인과 불안애착요인,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정적 양육행동, 가정의 소득과 불안애착요인, 친밀애착요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결혼적응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타당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